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조정받지 않는 달러와 연휴 앞둔 수급 리스크

서울, 9월2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긴 추석 연휴를 앞둔 역내외 수급에 초점을 맞추며 틈틈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20-1,340원이다.

지난주말까지 달러지수는 10주 연속 올랐다. 글로벌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와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되는 가운데 당분간 강달러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노바스코셔뱅크 FX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공개한 자료에서는 19일 기준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투기적 거래 달러 포지션이 롱으로 전환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달러/엔을 필두로 강달러 확산 정도에 당분간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완화적인 정책을 고수한 일본은행(BOJ) 스탠스를 감안할 때 미국 채권금리 상승 압력이 꺼지지 않는다면 엔 약세 시도는 지속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위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두 통화 모두 당국 변수가 크게 고려되고는 있지만, 이들 통화들의 약세 시도가 수시로 확인되는 만큼 원화는 이들 통화 변동성에 노출된 채 함께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주에 국제 금융시장이 가장 주목한 이벤트는 미국 8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온라인 타운홀 미팅이다. 아울러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비롯해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지수 및 중국 9월 공식 제조업·서비스업 PMI 등도 챙겨봐야 할 지표다.

또한, 미국 섀도우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반응은 변수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표되기 때문에 금주 원화는 추석과 개천절 연휴를 앞두고 처리될 역내외 수급에 주로 등락할 것으로 보인다. 긴 연휴를 앞두고 네고 저항 강도에 우선 초점이 맞춰지는 한편 역외들의 포지션 조정도 더해질지 주목된다.

통상 추석 연휴를 전후해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런 데다 이번에는 분기말 리스크까지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하려할 수 있어, 환율은 얇은 호가 속 반응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다.

한편, 이달 마지막 거래일 외환당국은 2분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 ▶ 주간 국내외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9월25일(월)

-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0)
- ⊙ 한국은행: 2023년 10월중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배포시)
- ⊙ 한국은행: 총재 2023년 하반기 금융협의회 (18:00)

9월26일(화)

- ⊙ 한국은행: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CSI) (06:00)
- ⊙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09: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비통방, 09:00)
- ⊙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 (11: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14:00)

9월27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 (09:00)
- ⊙ 기획재정부: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11:30)
- ⊙ 한국은행: 2023년 8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12:00)
- ⊙ 한국은행: 2023년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12:00)
- ⊙ 통계청: 2023년 7월 인구동향·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 (12:00)
- ⊙ 한국은행: 2023년 2분기중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 시장안정화를 위하여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실시한 외환순거래액

9월28일-29일(목,금)

- ⊙ 추석 연휴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9월2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9월25일	21:30	미국	전미활동지수	8월		0.12
9월26일	21:00	미국	건축허가건수 수정치	8월		1.543M
9월26일	22:00	미국	주택가격 MM	7월		0.3%
9월26일	22:00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MM SA	7월	0.6%	0.9%
9월26일	23:00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9월	105.6	106.1
9월26일	23:00	미국	신축주택판매	8월	0.700M	0.714M
9월27일	10:30	중국	산업이익 YTD	8월		-15.5%
9월2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7월		-1.2
9월27일	17:00	유로존	총유동성(M3) 증가율	8월	-1.0%	-0.4%
9월27일	17:00	유로존	가계대출	8월		1.3%
9월27일	20: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9월22일 주간		192.1
9월27일	21:30	미국	내구재주문	8월	-0.4%	-5.2%
9월28일	18:0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9월		-0.33
9월28일	18:00	유로존	경기체감지수	9월	92.5	93.3
9월28일	18: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9월	-17.8	-17.8
9월28일	21:30	미국	GDP 확정치	2분기	2.2%	2.1%
9월28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9월18일 주간	217k	201k
9월28일	23:00	미국	잠정주택판매	8월	-0.2%	0.9%
9월28일	08:30	일본	도쿄 CPI	9월		2.9%
9월29일	08:30	일본	실업률	8월	2.6%	2.7%
9월29일	08:50	일본	산업생산 잠정치 YY	8월		-2.4%
9월29일	08:50	일본	소매판매 YY	8월	6.6%	6.8%
9월29일	14:00	일본	소비자신뢰지수	9월		36.2
9월29일	14:00	일본	건축주문 YY	8월		8.7%
9월29일	14:00	일본	주택착공 YY	8월		-6.7%
9월29일	18:00	유로존	조화소비자물가지수 잠정치 YY	9월	4.5%	5.2%
9월29일	21:30	미국	개인소득 MM	8월	0.4%	0.2%
9월29일	21:30	미국	소비 MM	8월	0.5%	0.8%
9월29일	21:30	미국	근원 PCE 물가지수 MM	8월	0.2%	0.2%
9월29일	22:45	미국	시카고 PMI	9월	47.4	48.7
9월29일	23:0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9월	67.7	67.7
9월30일	10:30	중국	공식 제조업 PMI	9월		49.7
9월30일	10:30	중국	공식 서비스업 PMI	9월		51.0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9월25일 (월)

-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오사카 재계 지도자들 회동 후 기자회견 (오후 2시30분)
- ⊙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청문회 참석 (오후 10시)
- ⊙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와튼센트럴뱅크클럽 주최 행사 참석 (26일 오전 7시)

9월26일 (화)

- ⊙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 연준 주택시장 관련 행사 환영사 (27일 오전 2시30분)

9월27일 (수)

- ⊙ BOJ 7월27-28일 회의록 공개 (오전 8시50분)

9월28일 (목)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설 (오후 10시)
- ⊙ 리사 쿡 연준 이사, 델러스 연방은행 주최 포럼에서 폐회사 (29일 오전 2시)
- ⊙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장과의 대화: 교사 타운홀 미팅" 개최사 및 토론 참석 (29일 오전 5시)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뉴욕대 머니마켓이어행사에서 연설 (29일 오전 8시)

9월29일 (금)

- ⊙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IEA-ECB-EIB 컨퍼런스 개최사 (오후 4시40분)
- ⊙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 롱아일랜드협회(LIA) 행사에서 연설 (30일 오전 1시45분)
- ⊙ 휴장국가: 중국(10월6일까지), 대만 등

## ▶ 금주 세계 주요 이슈

### ⊙ 美 PCE 물가지수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가운데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29일 발표된다.

8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년비 3.9% 상승해 전월 4.2%보다 둔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준은 지난주 금리를 동결했지만, 2024년까지 통화정책이 이전 예상보다 훨씬 더 긴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들은 또 오는 정부 섯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의회의 상황도 주시할 것이다.

### ⊙ 유로존 소비자 물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언제 중단할지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29일 발표될 유로존 소비자물가가 시장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8월 조화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비 5.2% 상승해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9월에는 4.5%로 둔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ECB의 목표치 2%는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ECB는 이달 예금 금리를 사상 최고치인 4%로 인상하고 내년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ECB는 적어도 잠시 인상을 쉬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지면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추측에 불이 붙을 것이다.

#### ⊙ 유가 상승세 지속될까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주요 인플레이션 변수인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 10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이 주요 동인이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론적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려면 유가가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유가 100달러 전망이 더 확산되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 ⊙ 인도, 주요 채권지수 편입

인도가 마침내 JP모건의 벤치마크 GBI-EM 신흥시장 국내채권 지수에 편입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인도의 국내 채권 시장에 수백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며, 공식 편입은 2024년 7월부터 인도의 비중이 10%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이 2% 미만인 인도 국채 시장은 28일 FTSE러셀이 인도를 신흥국 채권 벤치마크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 ⊙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딜레마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처하는 동시에 통화 가치 하락을 막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21일 8개월째 금리를 동결했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될 수도 있었지만, 페리 워지요 총재는 통화 안정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필리핀 중앙은행은 매파적 동결을 선택해 2분기 거의 12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경제 성장보다 폐소에 대한 지원을 우선했다.

태국 중앙은행은 27일 회의에서 쌍둥이 적자 확대와 경제 부진에도 바트 약세 때문에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입도 하나의 전략이나, 연준 증 다른 중앙은행들의 결정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분석) - 中 경제 우려 속 과감한 개혁 요구도 확대

베이징, 9월223일 (로이터) -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정부 자문가들 사이에서 최선의 방안에 대한 의견이 양극화되고 있다. 구조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며 부진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 지출을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정부 자문단 사이의 이러한 논쟁은 드문 일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단편적인 지원책이 쏟아지면서 중국 경제 지도부가 단기적인 구제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미뤄온 개혁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커졌다.

즉각적인 경기 부양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의 부채가 적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가 인프라 및 기타 지출을 통해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 찬성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 경기 부양책은 그 수명을 다했으며 이제 경제에 더 과감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진영 모두 12월에 예정된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정책결정자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전에 중앙은행에 자문을 제공했던 영향력 있는 정부 이코노미스트 위용딩은 "더 강력한 부양 정책과 전반적인 계획, 거시경제 정책 수단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병원과 양로원 같은 공공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중국은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과 GDP 대비 국채 비율을 높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인민은행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자본 도피와 위안화 절하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에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문가는 "우리는 재정 부양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의 건전한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총생산 대비 중앙 정부의 부채는 21%에 불과하며, 숨겨진 부채를 포함한 지방 정부 부채 비율 76%보다 훨씬 낮다.

개혁 진영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거주 허가 제도, 즉 '후커우(户口)'를 완화하고 국영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없애는 등 구조 개혁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단된 시장 개혁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주말 로이터의 인터뷰에서 IMF가 중국에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 정부 부채를 억제하며 부풀려진 부동산 부문을 정리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자문단 중 한 명은 "정책 부양책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류스진 중국인민은행 자문은 중국이 도시로 유입된 이주 노동자들의 소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류스진은 부동산, 수출, 인프라 등 성장 동력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 포럼에서 "성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에 계속 집중하면 부작용이 커지고 더 중요한 것은 구조 개혁의 기회를 또다시 놓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만이 아니다"라며 "확장적 효과가 있는 구조 개혁도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 ◆ 줄타기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경기 부양과 개혁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무라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룽 수바라만은 단기 부양책이 성장을 촉진하겠지만 구조적 왜곡을 악화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구조 개혁은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품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낸다.

그는 "중국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더 어려운 구조 개혁보다는 정책 부양에 더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성장은 부동산 침체, 인구 고령화, 높은 부채,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부동산 부문의 약세로 인해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5.0%에서 4.9%로 하향 조정했다.

구조적 변화에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지만, 개혁 지지자들은 이러한 변화 없이는 중국이 경제,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칭다오 대학의 경제학자이자 전 정부 자문인 이셴룽은 "덩샤오핑이 세운 기초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외 투자자들이 신뢰를 갖지 못해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한 경제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그래프)-글로벌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가시화

런던, 9월22일 (로이터) -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통화 긴축을 언제, 어떻게 중단할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시장을 놀라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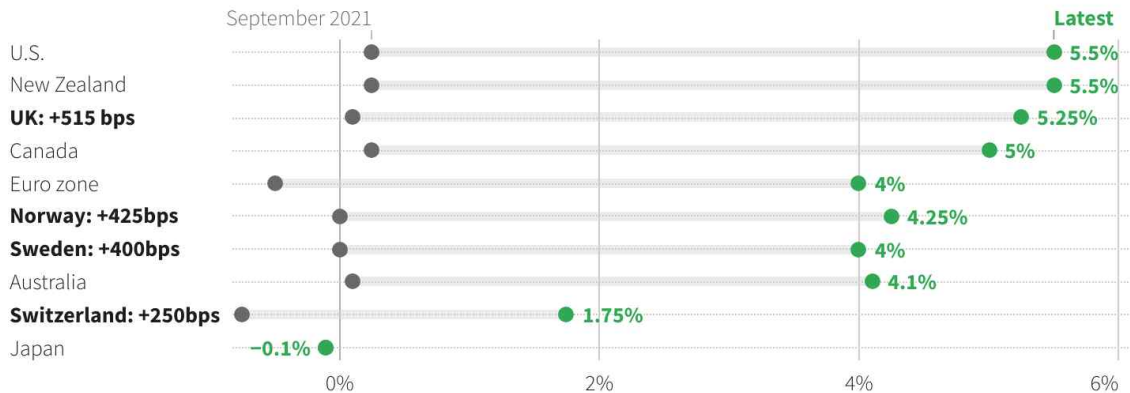
연방준비제도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스위스는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했다. 영란은행도 최근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선진 9개국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를 총 3.965bp 올린 반면, 일본은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중앙은행들의 상황을 이번 사이클에서 단행한 금리 인상폭이 큰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 The race to raise rates

Change in policy rates by central banks overseeing the 10 most traded currencies



Note: As of September 21, 2023.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tember 21, 2023 | By Sumanta Sen

####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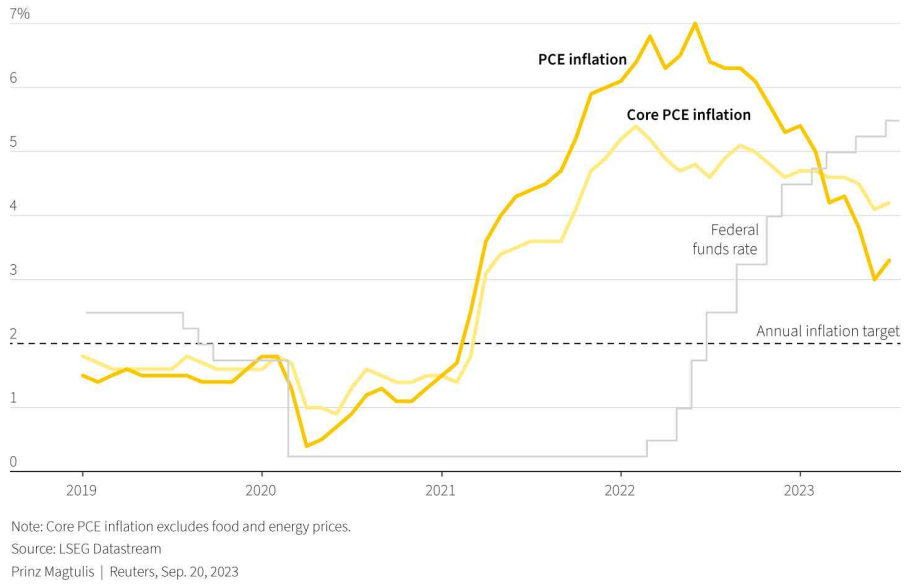
연준은 20일 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올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선물이 연말까지 금리가 25bp 더 인상될 확률을 약 50%로 반영하는 등 시장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당분간 매파적인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 Close watch on inflation after Fed holds rates steady

The Federal Reserve kept interest rates steady at its latest policy meeting but said inflation remains elevated. The Fed's preferred price gauge, th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index, is still running above its 2% targ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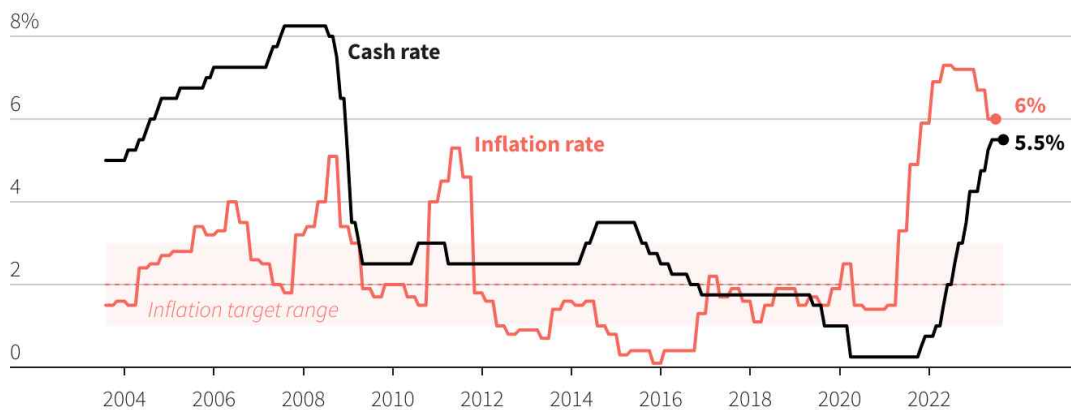
##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은 5월에 기준금리를 14년 만의 최고치인 5.5%로 인상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의 경기 부양책을 철회하는데 앞장섰던 RBNZ는 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다.

## New Zealand central bank hits pause

New Zealand's central bank held its cash rate steady at 5.5% in August but slightly pushed out when it expects to start cutting borrowing costs to 2025.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 14, 2023 | By Riddhima Talw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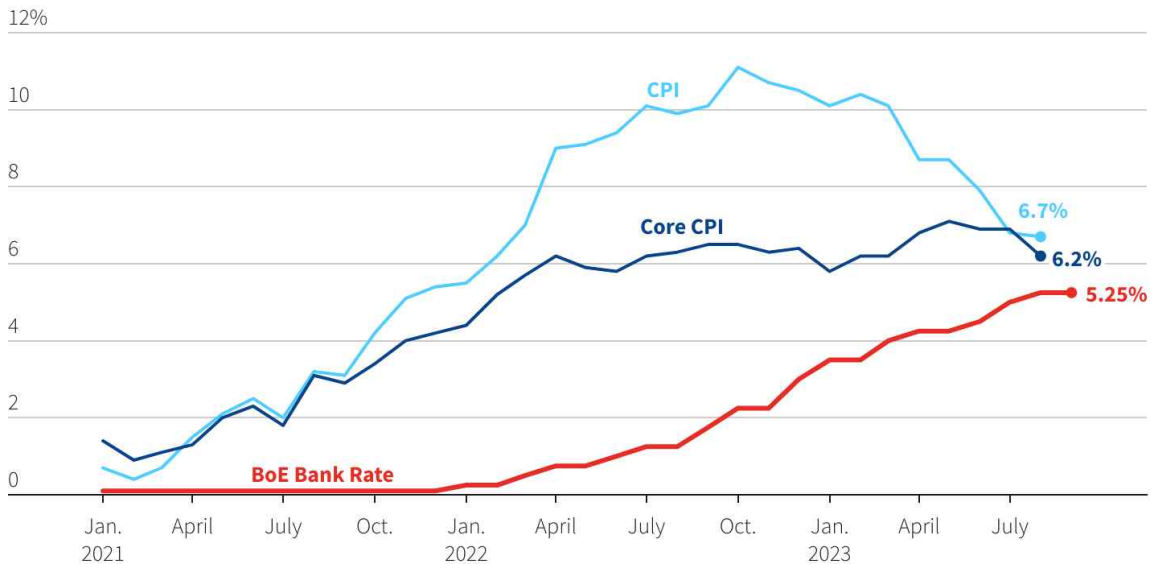
## 3. 영국

영란은행은 21일 경기 둔화 조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5.25%로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여지를 열었다.

이 결정 이후 파운드 가치는 급락했고, 금리선물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금리 결정 전 약 50%였던 11월 금리 동결 확률은 70%로 확대 반영했다.

## BoE presses pause

The Bank of England kept its Bank Rate unchanged at 5.25% for the first time since December 2021 but said that it was not taking the recent fall in inflation for granted.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tember 21, 2023 | By Sumanta 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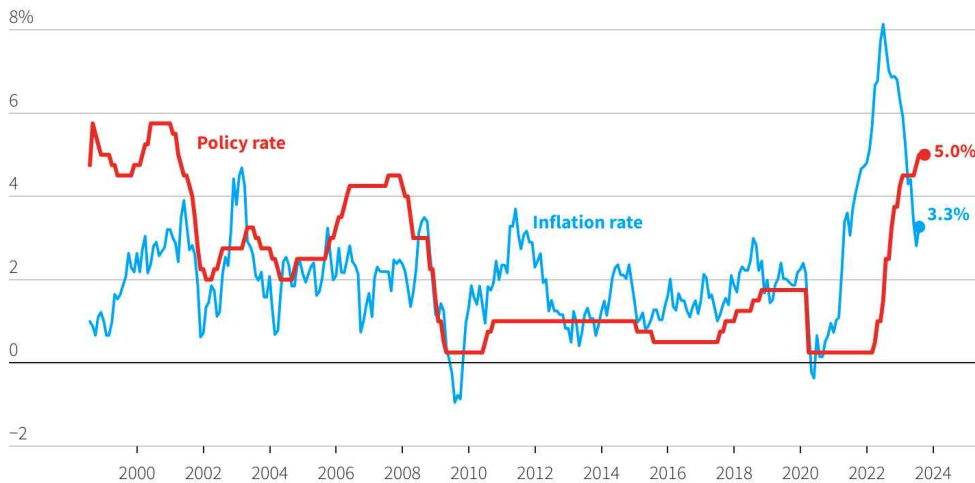
## 4. 캐나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7일 통화정책이 물가를 목표치로 되돌리기에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매파적인 발언은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지만 물가 압력이 지속되면 다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인플레이션율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27개월째 상회하고 있다.

## Bank of Canada holds rates but says further hikes possible

The Bank of Canada (BoC) held its key policy rate at 5% in August, noting that the economy had entered a period of weaker growth, but said it could raise borrowing costs again should inflationary pressures persist.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 14, 2023 | By Riddhima Talwani

## 5.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은 14일 기준금리를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 수준인 4%로 인상했지만, 1년 이상 지속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ECB의 금리 인상이 끝났으며 적어도 2024년 7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 ECB hikes policy rate to record high

The European Central Bank raised its policy rate by 25 bps to 4%, the tenth consecutive hike since the start of the tightening cycl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September 14, 2023 | Vincent Flass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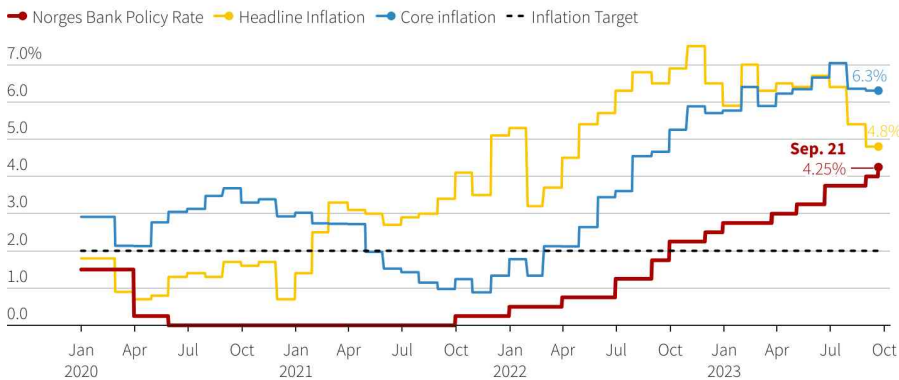
## 6. 노르웨이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21일 기준금리를 4.25%로 25bp 인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12월에 또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8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6.3%로 예상 밖으로 하락하면서 21일 인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그러나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은행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4.7%로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기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 Norges Bank hikes interest rate by 25 bps

The central bank raised its key policy rate to 4.25% during the September 21 meeting with the governor indicating another rate hike in December.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 21, 2023 | By Vineet Sachd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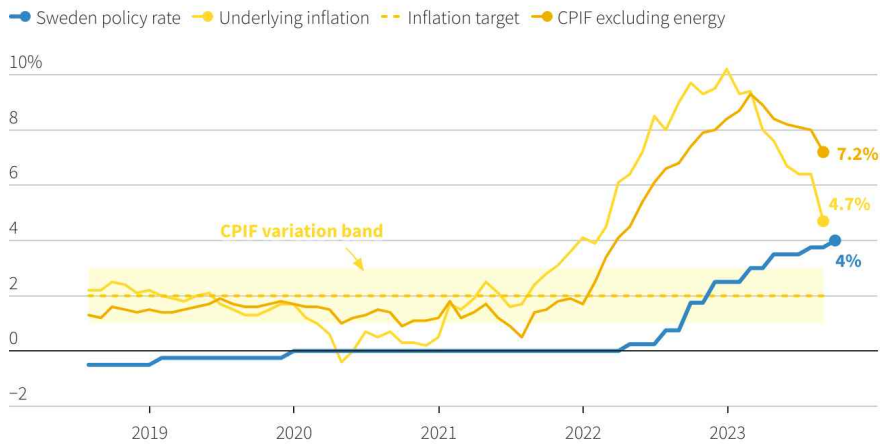
## 7. 스웨덴

스웨덴 중앙은행은 21일 예상대로 주요 정책 금리를 4%로 25bp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더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 크로나는 2023년 유로 대비 약 7% 절하돼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고, 인플레이션율은 8월 4.7%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경제가 0.8% 수축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정책결정권자들은 급격히 둔화되는 경제에 직면해 있다.

### Riksbank hikes its policy rate by 25 basis points

Sweden's central bank raised its policy rate to by 25 basis points to 4% and said that it might need to do more to curb inflation which continues to be at more than twice the bank's target.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tember 21, 2023 | By Sumanta Sen

## 8.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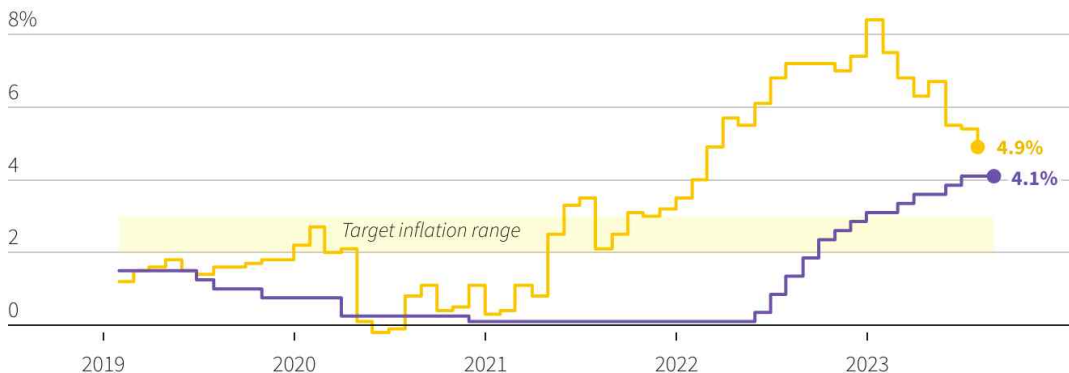
호주 중앙은행(RBA)의 9월 회의록에 따르면 필립 로우 총재가 마지막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25bp 인상을 고려했지만 3회 연속 금리를 4.1%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미셸 불록 신임 총재도 10월3일 회의에서 비슷한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은 2024년 초까지만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Cooling inflation takes pressure off RBA

Australia's central bank held interest rates steady in August for the third month at 4.1%, as inflation in the country slowed to a 17-month low in July.

RBA cash rate | Monthly inflation rate (Y/Y)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 5, 2023 | By Riddhima Talwani

## 9. 스위스

스위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율이 3개월 연속 0~2% 목표 범위 내에 들어오자 21일 예상과 달리 금리를 1.75%로 동결했다.

하지만 토마스 조던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2%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의 추가 긴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SNB's surprise move to pause rate hikes

The Swiss National Bank has entered "wait and see mode" after a surprise decision to hold its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t 1.75% as inflation dipped, but still left the door open for more tightening.

SNB policy rate | CPI (Y/Y)



Note: CPI figure is for August 2023.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t. 21, 2023 | By Pasit Kongkunakornkul

## 10. 일본

세계에서 가장 도비시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22일 통화정책회의의 결과를 발표한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올해 안에 종료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21일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대다수는 BOJ가 내년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 Possible end of BOJ's negative short-term rates

Governor Ueda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Yomiuri newspaper the Bank of Japan could end its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sending 10-year yields soaring above 0.7% for the first time in almost a decade.

Allow the 10-year Japanese government bond (JGB) yield to rise by up to 1%, and keep yield cap from -0.5 to 0.5% as reference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Sept. 14, 2023 | By Pasit Kongkunakornkul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국내전문가반응)-연준 의도적인 매파 신호... 단기적 불안정한 시장 전망

서울, 9월21일 (로이터) -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9월 정책회의가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매파적 입장 표명에는 의도적인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지난 6월과 같이 기준금리가 올해 5.50%~5.75% 범위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여전히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내 금리 인하 기대감 자극 등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매파적 장치로 해석하며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내년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금리가 '더 높게 더 오래(Higher for longer)' 이어지리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정부 섀다운 가능성, 미국 경제 체력 지속 여부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기에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화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당분간은 높은 금리 수준, 강달러 분위기가 이어지고 경제지표에 따라 시장이 등락하는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9월 회의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코멘트다.

### ▲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점도표와 함께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에서 PCE 물가 전망을 헤드라인은 상향한데 반해 코어 PCE를 하향했고, 2024년 전망의 경우 기존 2%대 물가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점도표 상에서 제시된 최종금리 수준 5.6%는 실제 인상을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긴축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한 수사적인 장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5.50%에서 종료됐다는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다."

### ▲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연말까지 한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보다 신중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과 물가 흐름이 전개된다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한다.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다. 하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연준의 통화정책도 변경될 여지가 다분하다. 즉, 높은 금리 수준보다 미국 경제의 체력이 얼마나 강한지가 향후 고금리 유지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듯하다."

### ▲ 윤여삼,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

"연내 연준의 추가인상이 단행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당장 예산안을 두고 섀다운 이슈가 부각되면,

올해 확장적 재정으로 버텨온 미국경제의 4분기 경로부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연방 금리 인하시점 지연 기대로 국내 통화정책 기대 또한 내년 상반기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우리는 미국 정책기조 동조화를 감안 한국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이연한다."

▲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이번 인상 국면에서 중앙은행 소통의 핵심은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을 남기는 것'이다. 내년 인하폭 축소를 반영하면서 시중금리가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연내 추가 1회 인상이 아주 미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표에 따라 불안정한 시장 흐름이 계속될 전망이며, 금리 상방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망은 유지한다."

▲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내년 금리 인하 폭 축소의 조합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한다. 연준이 바라보는 경기와 물가 경로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역시 제한적이다. 물가 둔화세 지속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금리 조정보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높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달러 하락을 예상하나 당분간 긴축 불확실성에 제한적인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질 듯하다."

▲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

"9월 FOMC를 본 결과 당분간 매크로, 특히 금융시장(FICC)의 부담이 이어질 것 같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울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듀레이션이 길고 고멀티플인 업종 등에는 좀 더 주의를 요한다. 여전히 에너지와 시클리컬이 나올 것 같다. 곧 1200원대로 내려가리라 봤던 달러/원 환율 전망치도 하단을 높여야 할 것

같다. 한국은행도 3.75% 기준금리를 배제할 순 없어졌다. 이를 선반영한 최근 금리 상승이 아니었나 싶다."

▲ 김준영, DS투자증권 연구원

"연준의 시나리오 하에서 내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라지면서 향후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해석되고 있다. 연준의 연착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시점에 예상보다 잘 나오는 경제 데이터가 내년 인하라는 선물의 크기를 줄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준이 집중하는 근원 물가의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인하 여력을 넓혀준다. 점도표상 인하 폭 축소는 경제 전망치 상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연착륙에 의구심이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해외전문가반응)-연준, 예상대로 금리 동결... “중단이 아닌 건너뛰기”

뉴욕, 9월21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가 2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하고 2024년까지 통화 정책을 이전 예상보다 훨씬 더 긴축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칼 샤모타, 코페이 수석 전략가

"이번 금리 동결은 '중단'이 아닌 '건너뛰기'이다. 경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되고 있어 연준이 매파적 입장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 연준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소통 전략에 있어 '더 높은' 금리보다는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하려고 했다."

◆ 제나디 골드버그, TD증권 금리전략팀장

"연준이 가능한 한 매파적 신호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표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것이고 경제가 둔화된다면 점도표가 바뀔 수도 있다. 이제부터 지표가 문제다."

◆ 앤드류 패터슨, 뱅가드 선임 이코노미스트

"내년 금리 인하폭 전망치가 줄어든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경제가 더 오랜 기간 고금리를 이겨낼 수 있고 연착륙을 할 수 있다는 연준의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라이언 데트릭, 칼슨그룹 수석 시장전략가

"연준은 경제가 견실하다고 인정했고 내년 금리 인하폭 전망을 줄였다. 이는 더 오래 높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 톰 마틴, 글로볼트인베스트먼트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

"내 생각보다 약간 더 매파적이었다. 금리에 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자 비용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 올루 소놀라, 피치레이팅스 미국경제팀장

"연준이 성장률을 상향하고 실업률은 하향 조정한 것은 여러차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착륙을 하리라는 기대치를 높인 것이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